

지역 소식통

정읍시농기센터, 4-H연합회 2024년 운영 임원 선출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는 지난 4일 시 4-H연합회 연말총회를 실시하고 2024년 4-H연합회를 운영할 임원을 선출했다.

이번 연말총회에서는 2023년 한해동안 활동했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결산보고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과 신규 임원들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회장에 이후원(29)씨, 부회장에 이정석(29)씨·서정우(25)씨, 감사에 김형중(31)·김선웅(25)씨가 선출돼 내년도 시 4-H연합회를 이끌어 나가게 됐다.

이주연 농촌지원과장은 "4-H 연합회는 회원들 대부분 지역의 유능한 농업인재로서 지역 사회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미래농업의 핵심인력과 지역농업 발전에 버팀목이 돼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현재 시 4-H연합회는 13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보건소, 민원 다발 구역 집중 금연지도 홍보

정읍시보건소는 흡연 폐해 예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금연 민원 다발 구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과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시 보건소는 금연담당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점검반 2개팀을 편성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시 제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연클리닉 신청안내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해 금연을 장려한다.

순회경 보건소장은 "이번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지역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정읍시, 청년 농업인 육성

농업인력 발굴 3년 간 최대 월 110만원 정착지원금 지급 11일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정읍시가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청년농업인을 발굴해 정읍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착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이 농업 분야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에 뜻이 있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 영농 초기 정착지원금과 교육·컨설팅, 후계농 정착자금 등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으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및 독립경영예정자 등이다. 신청은 농업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되면 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영농 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을 위해 후계농 정착자금을 최대 5억원, 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는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청·접수 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는 11일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정읍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들은 사업지침 안내와 사업계획서 작성 시연 등을 통해 사업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예비 청년농업인이 지원사업 신청 준비 시 궁금증을 해결하고,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봄으로써 역량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읍으로 청년농업인을 유입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지난 1일 서울시 마포구청을 찾아 저탄소 인증 친환경 유기농 쌀과 ㈜황토 배기유통 절임배추 양념세트 홍보·판매전을 개최했다.

고창군, 친환경 쌀·절임배추 홍보

고창군이 지난 1일 서울시 마포구청을 찾아 저탄소 인증 친환경 유기농 쌀과 ㈜황토배기유통 절임배추 양념 세트 홍보·판매전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홍보·판매전은 고창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송암·여곡 단지에서 재배된 쌀과 ㈜황토배기유통의 절임배추, 양념 세트를 홍보 및 판매하기 위해 추진됐다.

판매전에는 고창군청 이수경 농업정책과장, 김용태 송암친환경단지장을 비롯해 흥덕면 송암·여곡 친환경 쌀 생산 농가들과 ㈜황토배기유통이 함께하여 마포구청 직원과 시민, 각종 단체에 저탄소 쌀 5kg 1,301포를 완판했고, 절임배추 양념세트를 판매했다. 저탄소 재배 쌀은 영농직업은

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탄소 농업 기술로 감축해 생산하는 차세대 친환경 쌀로 논바다에 물이 상시 차 있는 관행농업과 달리, 관수와 배수를 적절히 지속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발생은 63%가 줄어들고 농업용수를 28.8% 절감, 수확량 10% 이상 증가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고창군청 이수경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판매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저탄소 농업으로 재배한 친환경 쌀과 절임배추 등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박강수 마포구청장님과 직원분들의 도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벼 재배 농가의 저탄소 농업 실천 등 미래지향적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금군양조', 해외시장 수출길 열어

베리&바이오킴연구소 제품개발 공동연구 사업화

고창군 관내기업인 금군양조(김원형 대표)와 (재)베리&바이오킴연구소의 협업을 통해 출시된 리큐르(Liqueur, 혼성주)가 수출길에 오른다.

금군양조는 지난 11월 국제성의 우리 술 브랜드(K-SULU) 수출지원협의회의 회원과 국내 메이저 주류사인 OB맥주의 인프라를 활용해 전통주 홍보 및 콜라보 마케팅 지원을 약속받았다.

꽃 추출물이 70% 이상 함유된 11도 꽃술은 은은한 향기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선물하기 좋은 술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홍콩과 중국 등지에 초도물량 1000병 이상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으며 최근 베트남 수출을 협의 중이다.

연구소에서 지역 향토 자원을 이용해 개발한 꽃술 5종(국화주, 해당화주, 벚꽃주, 아카시아주, 목련주)은 국내외 각종 주류박람회에서 소비자들에게 호평받은 바 있다. 금군양조 김원형 대표는 "이번 기회



고창군 관내기업인 금군양조와 (재)베리&바이오킴연구소의 협업을 통해 출시된 리큐르(Liqueur, 혼성주)가 수출길에 오른다.

를 발판 삼아 향후 연매출 100억을 목표로 꾸준한 해외시장 마케팅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는 대한민국 대표 K-SULU 브랜드가 되겠다"는 강한 포부를 밝혔다. 한편, 금군양조는 연구소 자체 R&D 사업으로 개발된 15도 꽃술의 기술이

전을 앞두고 있어 내년에는 출시될 제품군이 확대될 전망이다. 심덕섭 이사장은 "앞으로도 연구소가 지역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지원의 밑거름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기습폭설 대비 현장 대응훈련 실시

부안군은 5일 부안스포츠파크 일원에서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교통소통 대책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기습폭설에 고립된 운전자를 구조 및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도, 부안군, 부안소방서, 부안경찰서, 육군 제8008부대 1대대, 지역

자율방재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훈련은 부안스포츠파크 일대에 10cm이상의 기습 폭설을 가정하여 제설장비 전진배치, 고립차량 운전자 구조 및 응급구조, 구호물품 전달, 긴급복구반 투입 등으로 진행했다. 훈련은 실제 상황과 최대한 유사하

게 연출되었으며, 부안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기습폭설에 대비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계기로 삼았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훈련을 통해 겨울철 재난 상황 발생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가동해 정상적인 교통소통과 안전한 상황관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인공지능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호응

부안군이 AI·IoT를 활용해 추진중인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가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주민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이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측정기(블루투스 혈압기, 혈당기, 활동량계, 체중계)를 무상 지급하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미션을 실천하고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건강을 상담하는 사업이다.

군 보건소는 올해 7월부터 15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 제고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관리중인 대상자에게 건강측정



및 만족도 조사 등 사후 검사를 12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후평가는 약 6개월간 건강서비스 제공과 건강미션 달성을 통해 참여자 건강행태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했는지 사업 전후 건강측정치를 비교하는 것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